

I. 머리말

최근 中共의 경제발전과 세계무대에서의 역할증대는 中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과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다. 中共이 「竹의 장막」을 걷어내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韓·中共간의 거리가 점차 지척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西海岸시대와

共產圈의 석유사정

최근 中共당국이 韓國상공인들을 초청, 對中共투자환경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서울올림픽이 끝난뒤 中共이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고 보면, 두나라간의 직접교역의 날도 멀지 않은 느낌이다. 외신은 中共으로부터의 석유·석탄의 직수입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西海岸시대」를 맞아 中共을 중심으로한 共產圈의 석유산업현황과 이 분야에서의 관계증진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II. 中共의 石油사정

1. 中共의 에너지수급현황

中共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水力 등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資源 富國으로 향후 中共경제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잠재력이 되고 있다.

1986년 中共의 1차에너지소비는 총 6억7천70만 석유환산톤(TOE)으로서 美國과 소련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에너지源別로 보면, 석유 9천9백20만 TOE, 석탄 5억3천1백20만TOE, 천연가스 1천2백10만 TOE, 水力·기타 2천8백20만TOE로 석탄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에너지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中共은 인구 10억이 넘는 거대경제규모에 따른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中共의 에너지部門 投資 추이

(단위 : 10억 원)

|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總 投 資 | 50.1 | 52.3 | 55.9 | 44.3 | 55.5 | 59.4 | 74.3 | 107.4 | 115.2 |
| 工 業 部 門 | 27.3 | 25.7 | 27.6 | 21.6 | 26.1 | 28.2 | 34.1 | 44.6 | ... |
| 에 너 지 部 門 | 11.4 | 10.7 | 11.3 | 9.0 | 10.2 | 12.7 | 16.5 | 20.5 | 24.1 |
| 石 炭 | ... | 3.2 | 3.3 | 2.3 | 3.0 | ... | ... | ... | ... |
| 石 油 | ... | 2.7 | 3.2 | 2.7 | 2.6 | ... | ... | ... | ... |
| 탐 사 | ... | 1.3 | 1.5 | 1.3 | 2.2 | ... | ... | ... | ... |
| 정 제 | ... | 0.5 | 0.6 | 0.5 | 0.4 | ... | ... | ... | ... |
| 電 力 | ... | 4.8 | 4.8 | 4.0 | 4.6 | 5.4 | ... | ... | ... |

막대한 에너지 수요와 공업화정책추진과정에서 유발된 에너지 수요의 급증, 또한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 및 개발 기술의 낙후 등 제반문제점으로 인해 여전히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中共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中共은 방대한 국토에 산재해 있는 각종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 개방 정책 실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에너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이로 인한 전문 행정관료의 부족 및 에너지 관할 기구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中共은 지난 79년 이후 국가 경제 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1980년 8월에 국가 에너지 위원회가 설립되어 국가 경제 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에너지 사용과 분배에 관한 법규 제정을 시도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2년에 이 기구의 해체로 인한 에너지 전달 기구의 부재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공전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에너지 개발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기술적인 문제로 노후화된 생산 설비와 기술 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중공은 1960년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자력갱생의 원칙 아래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기술 도입과 외자 도입을 등한히 함으로써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낙후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경제 개방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인 애로점을 안고 있다.

세째로 재정적인 문제로서 에너지 개발과 中共 경제의 조화 있는 발전을 위하여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재원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기준 1인당 GNP가 425달러 수준에 있는 中共이 외자의 도입 없이 내자만으로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최근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도 이런 데 연유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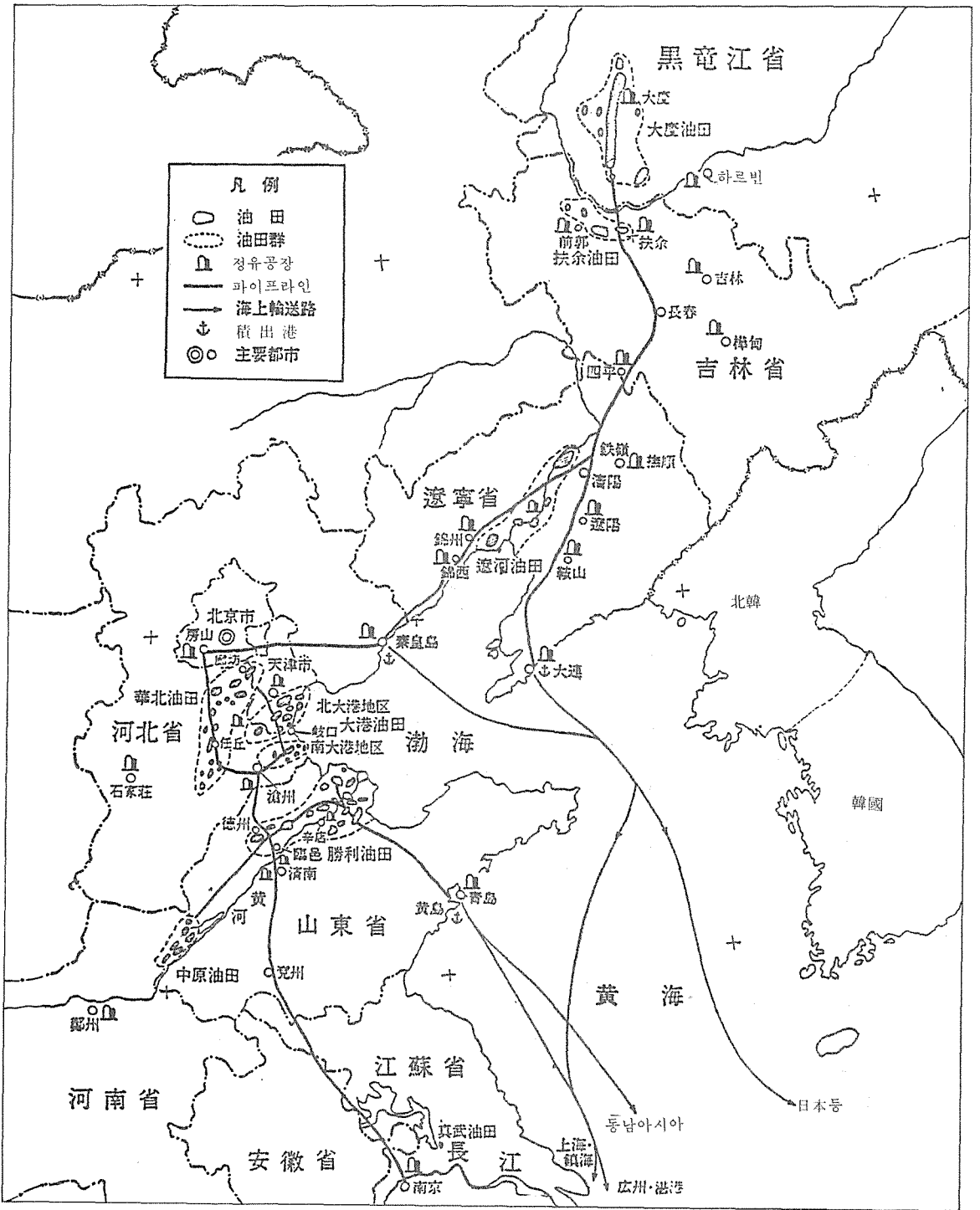
네째로 수송 설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中共의 주요 에너지 생산지는 대부분 서부와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비해 주요 소비지는 동부와 남부의 연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의 수송량이 많다. 특히 석탄의 경우 철도 수송량의 3분의 1 이상, 도로 수송량의 4분의 1 이상, 항만 하물 취급량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수송 설비가 낙후되어 있는 것도 中共의 에너지 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섯째로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은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석탄의 경우 洗炭率이 18%로 선진 공업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火力 발전의 발전 효율이 선진 공업국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3. 석유 개발 현황

中共의 석유 산업은 1959년 大慶油田의 발견을 계기로 하여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勝利 및 大港 등

中共 主要部の 石油産業圖



中共의 原油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천톤)

| | 原油 생산량 | 原油 수출량 | 석유제품수출량 | | | | | |
|------|-----------|-----------|---------|-------|-------|-------|-----|-----|
| | | | 총수출량 | 나프타 | 휘발유 | 輕油 | 燃料油 | 潤滑油 |
| 1965 | 11,310 | 196 | 102 | ... | ... | ... | ... | ... |
| 1970 | 30,650 | 191 | 193 | ... | ... | ... | ... | ... |
| 1975 | 77,060 | 9,870 | 2,100 | ... | ... | ... | ... | ... |
| 1980 | 105,950 | 13,310 | 4,202 | 590 | 1,180 | 1,610 | 320 | ... |
| 1981 | 101,220 | 13,840 | 4,591 | 890 | 1,310 | 1,540 | 350 | ... |
| 1982 | 102,120 | 14,680 | 5,272 | 1,320 | 1,420 | 1,590 | 340 | ... |
| 1983 | 106,070 | 14,820 | 5,119 | 1,500 | 1,380 | 1,270 | 350 | 35 |
| 1984 | 114,610 | 22,290 | 5,805 | 1,650 | 1,160 | 2,030 | 348 | 31 |
| 1985 | 125,000 | 31,170 | 6,353 | 1,740 | 1,270 | 2,270 | 376 | ... |
| 1986 | 131,000 | ... | ... | ... | ... | ... | ... | ... |

주요유전이 계속 발견됨으로써 中共은 1965년부터 石油의 자급자족을 이룩하였고, 1965년부터는 석유제품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中共의 원유생산은 대부분 육상유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유전은 이미 설비가 낙후되어 오는 1990년과 2000년의 연간생산목표량 1백50만톤과 2백만톤의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개조와 아울러 계속 새로운 탐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이미 1985년부터 남부 10개성에 대해 외국기업의 탐사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勝利, 中原, 遼河유전과 서북부에 위치한 克拉瑪依(Karamay) 유전 및 塔里木(Tarim) 분지등 기존의 유전과 아울러 신규유전에서 계속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탐사활동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港口로부터 약 3,200km나 떨어진 북서부 사막지대 보다는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부지역에서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서부 사막지대의 탐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유전의 생산현황을 보면, 黑龍江省에 위치한 中共 최대의 大慶유전이 1984년중 1백5만B/D로 연간 약 5천 3백50만톤을 생산하여 中共 전체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山東省에 위치한 勝利유전이 연간 약 2천 7백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집중적으로 조업을 시작한 華北유전은 1978년의 1천 7백만톤에서 1985년에는 약 1천만톤을 생산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遼河유전과 中原유전이 1985년에 각각 3백만톤, 5

백50만톤의 생산실적을 보였으며, 오는 1990년에는 연간 약 1천만톤의 생산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共의 해저유전개발은 1959년 渤海灣에서 실시한 항공자기탐사를 효시로 하여 1973년부터 渤海灣에서 시추선을 사용하여 시추작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바, 본격적으로 해저유전개발에 착수한 것은 지난 1979년 이후로 대내적으로 육상유전의 생산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대외적으로 제2차 석유위기로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한 것이 그 주요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탐사활동의 성과부진과 근년의 급격한 油價하락으로 해저유전개발의 경제성이 약화됨으로써 탐사활동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中共의 천연가스생산량은 지난 1979년의 1백45억 1천만 m³를 피크로 그후 감소추세를 보여 1981년에는 전년대비 10.8% 감소했으나, 198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中共의 비공식통계에 따르면, 中共의 가스매장량은 1981년 현재 1천 8백억 m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世界銀行은 1천 3백 15억 m³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 생산현황을 보면, 中共 가스생산량의 약 45%가 四川省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동북부에 위치한 大慶, 遼河, 勝利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해저가스田은 渤海, 東海 및 海南島 해상등지에서 발견되었는 바, 海南島 남쪽 해상 100km 지점의 Yacheng 13-1 가스田에서 약 9백억 m³의 가스매장량이 발견되었다.

中共 天然가스생산 현황

(단위: 억m³)

|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總 生 產 量 | 137.3 | 145.1 | 142.7 | 127.4 | 119.3 | 122.1 | 124.3 | 129 |
| 四 川 | 61.5 | 65.2 | 63.3 | 57.8 | 52.4 | ... | ... | ... |
| 大 慶 | 32.0 | 33.1 | 33.9 | 29.0 | 27.8 | ... | ... | ... |
| 遼 河 | 18.0 | 18.6 | 18.8 | 15.3 | 12.6 | ... | ... | ... |
| 勝 利 | 14.0 | 15.0 | 14.2 | 10.4 | 9.7 | ... | ... | ... |
| 기 타 | 11.0 | 13.2 | 12.5 | 14.9 | 16.8 | ... | ... | ... |

4. 石油수출

中共은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최근에는 체제와 이념이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도 미래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인中共의 석유수출은 소요원유의 상당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공급원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아시아

소비국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中共은 지난 70년대에 油價 상승에 힘입어 석유개발투자를 활발히 전개했고, 이에 따라 산유량도 크게 늘어나 80년대 초반에는 2백만B/D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中共의 석유개발투자는 급속히 감퇴하여 해외유전탐

中共의 石油수출 추이 및 전망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연 간 증가율 85-90 (%) |
|----------------|-------|-------|-------|--------|--------|-------|-------|-------|-------|----------------------------|
| 輸 出 (1,000B/D) | | | | | | | | | | |
| 原 油 | 293.6 | 296.6 | 440.2 | 600.0 | 570.0 | 544.0 | 552.0 | 557.0 | 560.0 | - 1.4 |
| 大 慶 | - | - | 396.2 | 480.0 | 427.5 | 374.0 | 345.0 | 313.3 | 280.0 | -10.8 |
| 勝 利 | - | - | 44.0 | 120.0 | 142.5 | 170.0 | 207.0 | 243.7 | 280.0 | +16.9 |
| 製 品 | 107.6 | 107.6 | 124.9 | 136.1 | 109.2 | 111.0 | 99.0 | 83.0 | 68.0 | -13.9 |
| 計 | 401.2 | 404.4 | 565.1 | 736.1 | 679.2 | 655.0 | 651.0 | 640.0 | 628.0 | - 3.2 |
| 平均수출가격 (\$/B) | | | | | | | | | | |
| 原 油 | 30.30 | 26.72 | 25.08 | 23.97 | 11.43 | 16.38 | 18.25 | 20.13 | 21.00 | - |
| 大 慶 | - | - | - | - | 12.00 | 17.00 | 19.00 | 21.00 | 22.00 | - |
| 勝 利 | - | - | - | - | 11.00 | 15.00 | 17.00 | 19.00 | 20.00 | - |
| 製 品 | 35.42 | 33.53 | 29.68 | 29.15 | 18.86 | 22.00 | 25.00 | 26.00 | 27.00 | - |
| 輸出가격 (10억달러) | | | | | | | | | | |
| 原 油 | 3.25 | 2.89 | 4.03 | 5.25 | 2.38 | 3.25 | 3.68 | 4.09 | 4.29 | - 4.0 |
| 製 品 | 1.39 | 1.32 | 1.35 | 1.45 | 0.75 | 0.89 | 0.90 | 0.79 | 0.67 | -15.4 |
| 計 | 4.64 | 4.21 | 5.38 | 6.70 | 3.13 | 4.14 | 4.58 | 4.88 | 4.96 | - 6.0 |
| 貿 易 (10억달러) | | | | | | | | | | |
| 非 石 油 | 17.30 | 17.95 | 19.65 | 20.66 | 27.80 | 30.58 | 33.64 | 37.00 | 40.70 | +13.6 |
| 總 輸 出 | 21.94 | 22.16 | 25.03 | 27.36 | 30.93 | 34.72 | 38.22 | 41.88 | 45.66 | +10.2 |
| 輸 入 | 18.94 | 21.32 | 26.75 | 42.26 | 42.90 | 44.19 | 45.51 | 46.88 | 48.28 | + 2.7 |
| 貿 易 取 支 | +3.00 | +0.84 | -1.72 | -14.90 | -11.97 | -9.47 | -7.29 | -5.00 | -2.62 | |

사투지는 1985년의 5억달러에서 1986년에는 2억7천만달러로 줄어들었고, 해외로부터의 개발장비 및 기술도입도 피크에 달했던 1985년의 12억달러에서 1986년에는 20%나 감소했다.

그러나 1987년 OPEC의 固定油價制 실시 이후 국제유가의 안정세가 유지됨에 따라 渤海灣과 남지나해등의 해저유전개발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석유 소비지까지의 장거리송유관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헨디캡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타림분지의 육상유전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中共의 석유개발전망은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한편 中共의 산유량은 80년대 중반까지의 활발한 개발활동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84~85년에 연평균 8% 정도 증가했으며, 국제유가가 급락한 1986년에도 5% 늘어났고, 1987년에도 늘어나 산유량은 2백70만B/D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中共의 산유량은 최근의 低油價 및 탐사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는 1990년까지 3백만B/D, 2000년에는 3백50만B/D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산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中共의 급속한 공업화진전에 따른 국내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석유 수출여력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Ⅲ. 소련의 石油사정

1. 석유수급현황

지난 8년간 소련의 석유생산량은 계획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 왔으나, 1987년에는 생산목표량인 1천2백34만B/D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7년에 소련의 석유생산량은 전년대비 20만B/D 증가한 1천2백50만B/D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2000년까지 소련의 석유생산량은 1천3백만~1천3백5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련의 석유생산계획은 오는 1990년에 1천2백70만B/D에 이어 2000년에 1천3백20만B/D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지금까지의 유전설비 낙후와 기술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西部시베리아지역의 유전을 개발, 산유량을 현재의 7백90만B/D에서 오는 2000년에는 1천만B/D 규모로 늘릴 것을 重點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련 전체산유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유비중이 2000년에는 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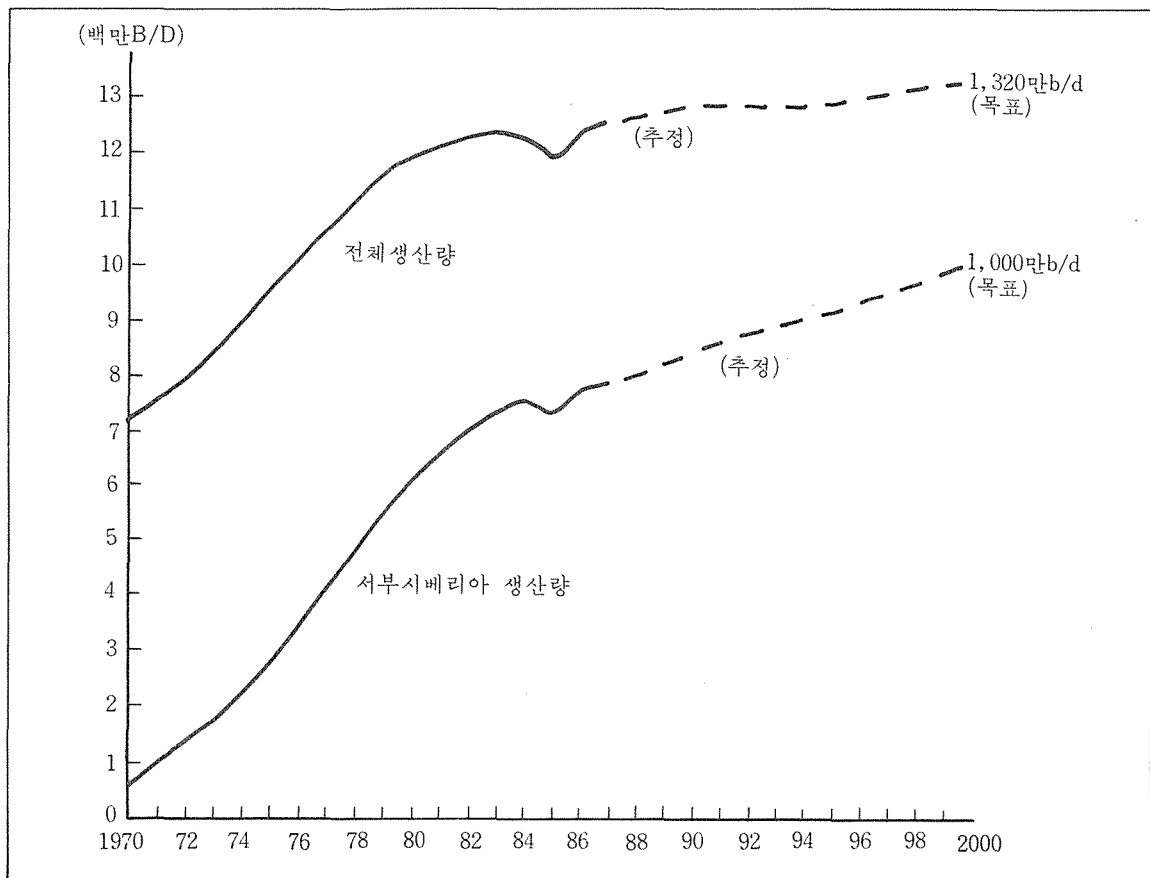
2. 에너지 장기전망

소련의 1차에너지소비는 1986년의 14억1천4백20만 석

中共의 에너지소비 추이와 전망

| | 1986 | 1990 | 1995 | 2000 | 1987-2000 연평균증가율 (%) |
|-----------------------|-------|-------|-------|---------|----------------------------|
| 1 차 에너지 소비 (백만TOE) | 670.7 | 780.7 | 911.7 | 1,053.2 | 3.3 |
| • 石 油 | 99.2 | 115.3 | 125.8 | 152.0 | 3.1 |
| • 石 炭 | 531.2 | 623.5 | 723.1 | 827.9 | 3.2 |
| • 天 然 气 | 12.1 | 15.7 | 26.2 | 31.4 | 7.0 |
| • 水 力·기 타 | 28.2 | 26.2 | 36.7 | 41.9 | 2.9 |
| 1 차 에너지소비구조(%) | 100.0 | 100.0 | 100.0 | 100.0 | |
| • 石 油 | 14.8 | 14.8 | 13.8 | 14.4 | |
| • 石 炭 | 79.2 | 79.9 | 79.3 | 78.6 | |
| • 天 然 气 | 1.8 | 2.0 | 2.9 | 3.0 | |
| • 水 力·기 타 | 4.2 | 3.3 | 4.0 | 4.0 | |
| 石油수출량(백만B/D) | 0.70 | 0.70 | 0.80 | 0.70 | 0.0 |
| 石炭수출량(백만톤) | 9.9 | 20.0 | 32.2 | 51.9 | 12.6 |

소련의 石油생산추이 및 전망



소련의 에너지 전망

| | 1986 | 1990 | 1995 | 2000 | 1987-2000 연평균증가율 (%) |
|-----------------|---------|-------|-------|-------|----------------------------|
| 1 차에너지소비(백만TOE) | 1,414.2 | 1,615 | 1,805 | 1,950 | 2.3 |
| 石油 | 445.0 | 450 | 450 | 430 | - 0.2 |
| 석탄 | 376.2 | 390 | 415 | 450 | 1.3 |
| 天然가스 | 505.3 | 605 | 775 | 845 | 3.7 |
| 원자력 | 35.2 | 50 | 90 | 140 | 10.4 |
| 수력·기타 | 52.5 | 60 | 75 | 85 | 3.5 |
| 石油수출(백만B/D) | 3.61 | 3.81 | 3.71 | 3.41 | - 0.4 |
| 공산권 | 1.80 | 1.80 | 1.69 | 1.70 | - 0.4 |
| 自由世界 | 1.81 | 2.02 | 2.02 | 1.71 | - 0.4 |
| 천연가스수출(10억m³) | 84.6 | 121.1 | 127.0 | 128.0 | 3.0 |
| 공산권 | 40.8 | 65.0 | 65.0 | 65.0 | 3.4 |
| 自由世界 | 43.8 | 56.1 | 62.0 | 63.0 | 2.6 |

유환산톤(ТОЕ)에서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향후 2000년에는 19억5천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 석유소비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무므로써 석유의존도는 1986년의 31.5%에서 22.1%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매장량이 풍부한 소련의 천연가스는 석유대체에너지로서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1차에너지중 천연가스의 비중은 1986년의 35.7%에서 2000년에는 43.3%로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소련은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수송난으로 인한 에너지수급의 불균형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소련은 열병합발전방식의 지역난방확충,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스·原子力발전소비확대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BAM(바이칼-아무르)철도건설을 통해 수송난 해결과 시베리아 에너지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IV. 對共產圈 교역전망

1. 韓·中共 교역현황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韓·中共관계의 개선을 공약한 盧泰愚후보의 당선과 민정당정책으로 양국의 교역확대를 가정한 西海岸시대의 개막선언 및 中共의 88올림픽 이후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임에 대한 비공식적인 시사등으로 최근에 이르러 韓國과 中共간의 교역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다.

공산권과의 교역은 아직까지는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림픽 이후 직접교역여건이 조성되면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韓國과 中共과의 관계는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유지되어 왔고, 1984년 하반기 이후 中共이 그들의 우호국이 될 수 없는 국

韓國과 中共 교역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 | 1984 | 1985 | 1986 |
|---------|-------------|-------------|-------------|
| 수 출 | 160 (255.6) | 346 (116.3) | 278 (△19.7) |
| 수 입 | 185 (60.9) | 249 (34.6) | 376 (51.0) |
| 무 역 총 액 | 345 (115.6) | 595 (72.5) | 654 (9.9) |
| 대中共무역수지 | △25 | 97 | △98 |

註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資料〉 홍콩정정 통계

가에서 韓國을 제외시킨 이후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왕래와 각종전시회 참가등이 일정한 규제하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졌다고 보여진다. 최근 정부당국도 『對 共產圈 직접교역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통상교섭체널을 구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韓國과 中共간의 교역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1월부터 9월까지 홍콩을 통한 韓國의 對中共 수출총액이 3억6천만달러, 수입총액이 4억8천만달러로 집계되고 있어 무역총액이 전년동기대비 72% 신장되었다.

양국이 모두 직물 및 원사등의 섬유류가 수출입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韓國의 中共에 대한 수출은 모방과 화섬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中共으로부터의 수입은 비단, 생사, 원면등 원자재의 성격을 띤 제품이나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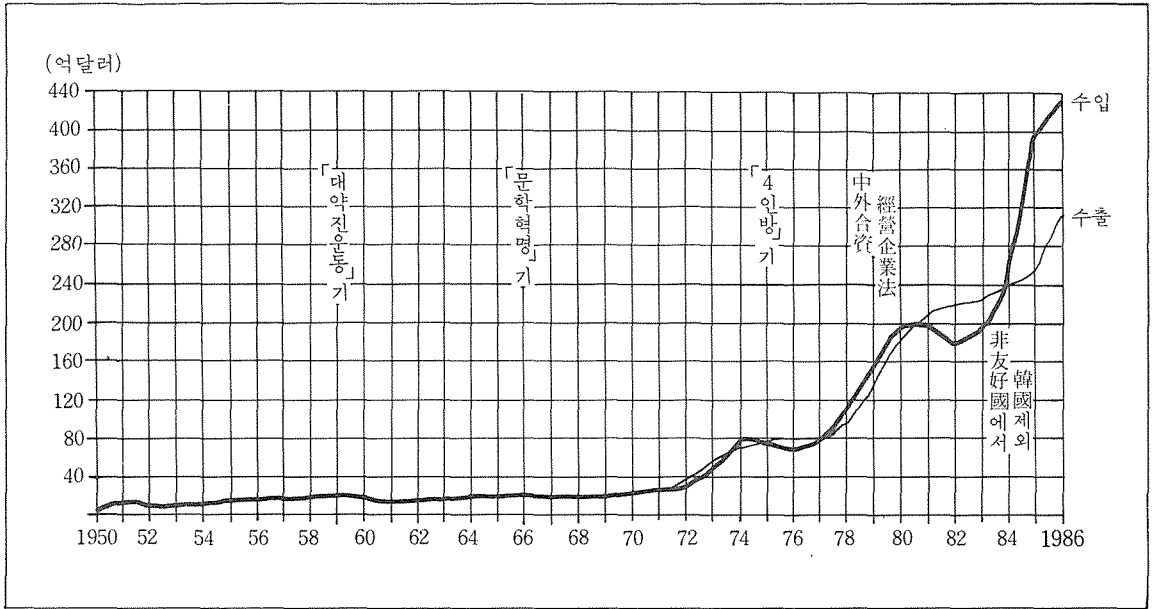
1986년 실적으로 파악한 기타 對中共수출 주요품목은 제지(8.2%), 전자부품(7.0%), 철강류(5.5%)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中共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화학제품(8.1%) 가공되지 않은 동식물성제품(5.0%) 음식료품(2.2%)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韓·中共교역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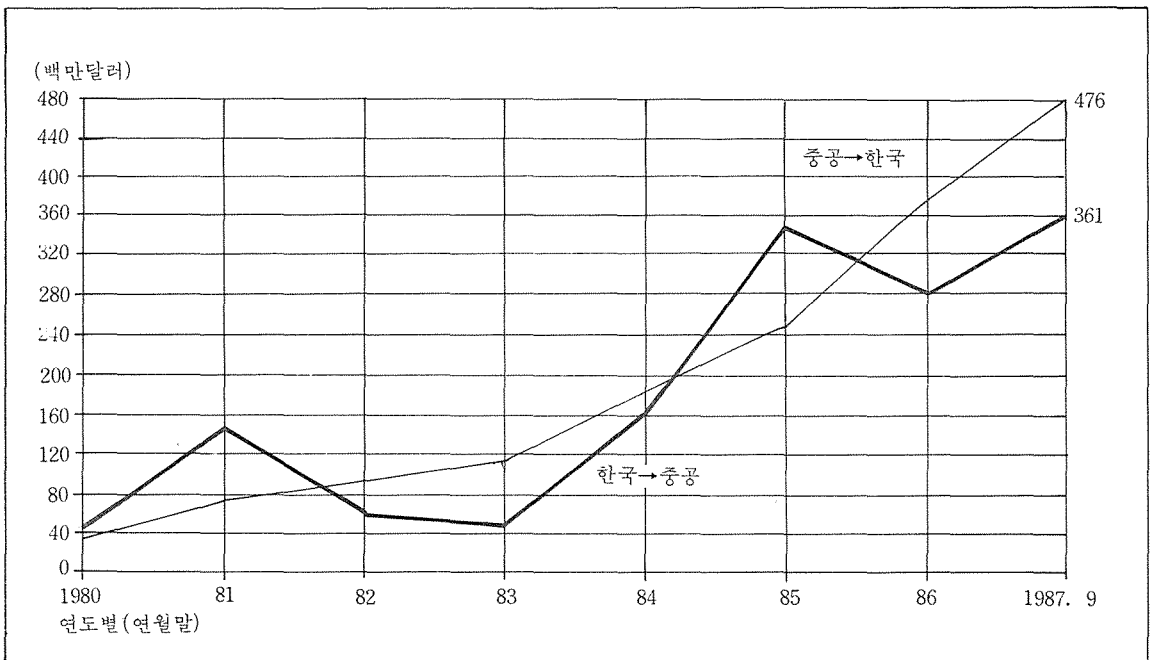
韓國과 中共과의 교역의 장기전망은 현재 中共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추진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외개방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개혁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脫이태올로지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현재의 현대화정책노선이 1987년 10월 25일에 열린 中共黨 제13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韓國과 中共의 교역수준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共의 무역구조는 1차상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형태인 반면, 韓國의 무역구조는 기계류등 자본집약적인 제품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이 본격화될 경우 中共은 석유, 석탄, 식료품, 공업원료등을 韓國에 팔고, 韓國은 역으로 기계류, 금속, 자동차, 가전제품등을 中共에 수출하는 상호보완관계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中共의 수출입 추이



韓·中共 간접교역 추이(홍콩 경유)



韓 · 中共 수출입 제품구성(1986)

| 수 출(韓國→홍콩→中共) | | | 수 입(中共→홍콩→韓國) | | |
|-------------------|---------------|------------|------------------|---------------|------------|
| 제 품 명 | 금 액 (백만달러) | 구성비 (%) | 제 품 명 | 금 액 (백만달러) | 구성비 (%) |
| 섬유사 및 직물 | 138.8 | 49.2 | 혼방직물, 견직물 등 | 199.8 | 53.1 |
| 제지 및 판지류 | 22.8 | 8.2 | 건사 및 라마사 등 | 86.5 | 23.0 |
| 전자부품(TV용 음극선관 등) | 19.4 | 7.0 | 화학제품(합성염료 등) | 30.5 | 8.1 |
| 철강제품 | 15.3 | 5.5 | 동식물가공제품(녹용, 향료등) | 18.8 | 5.0 |
| 비철금속(알루미늄박 등) | 14.0 | 5.0 | 비철금속(비제련아연 등) | 8.4 | 2.2 |
| 플라스틱 제품 | 9.7 | 3.5 | 음식료 | 8.4 | 2.2 |
| 유기화학제품 | 8.8 | 3.2 | 비금속광물(주석광 등) | 5.5 | 1.5 |
| 통신 및 재생기기(칼라TV 등) | 8.7 | 3.1 | 기 타 | 18.4 | 4.9 |
| 기 타 | 40.6 | 15.3 | | | |
| 計 | 278.1 | 100.0 | 計 | 376.3 | 100.0 |

韓 · 中共 무역유망분야 및 경합관계

| 대 중공 수출입 유망분야 | |
|---------------|---|
| 수 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사 ○인조섬유직물 ○철강제품 ○자동차 ○선박 ○기관차의 내연기관 ○공작기계 ○차량부품 |
| 수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 피 ○원 면 ○무연탄 ○原油 ○유기화학물 ○무기화학물 |

| 수 출 경 합 관 계 |
|---|
| - 日本 · 美國 · 香港 3 시장에서 약 200개 품목 경합 ○日本시장 : 106개 품목 → 韓國우위 : 61, 中共우위 : 45 ○美國시장 : 93개 품목 → 韓國우위 : 57, 中共우위 : 36 ○香港시장 : 64개 품목 → 韓國우위 : 19, 中共우위 : 45 |
| - 3개시장의 주요 경합품목 ○섬유사 ○직물 및 직물제품 ○의복류 ○잡제품 ○금속제품 |

中共의 문은 열리고 있다. 黃海를 사이에 둔 양국간의 지리적 위치가 韓國의 서해안개발을 통한 對中共교역의 지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그러나 韓中共 경제협력은 中共이 사회주의를 신봉하

고 있고, 北韓, 소련등의 견제세력도 만만치 않은데다 양국의 경제에 경쟁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단기간 꽃을 피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외화주고 사온석유 한방울도 낭비말자